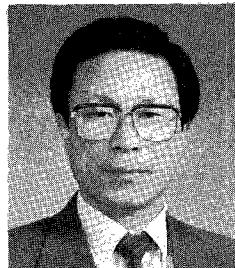


시설자동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양 창 육
한국축산기자재협회 회장

일의 앞뒤가 안맞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모순〉이라고 한다. 이는 고대 중국의 유가(儒家)에서 성인으로 받들고 있는 요(堯)와 순(舜)을 창과 방패에 비유하여 “순도 잘못을 고치는데 일년이 걸렸다. 그러나 상과 벌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드시 시행토록 천하에 인식시킨다면 열흘안에 온 세상이 잘 될 것인 즉 어찌 일년을 기다리리오”라고 도덕 정치를 비판하면서 한비(韓非)가 강력한 법치(法治)를 주장한데서 나온 말이다.

물론 세상의 구조가 많이 바꼈지만 민주정치, 축소행정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기구의 통폐합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자기주장의 관철만을 고집한다면 그야말로 못뚫을 창이 없고 못 막을 방패가 없는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창조물들은 모두가 적재적소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니 각자의 핵심요소(key-concept)들을 맹타한 협의와 결론을 창출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각설하고, 지난 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폭염의 이상기온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양계의 경우에도 그 피해의 폭이 커서 지역에 따라 최고 40%까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양계산물은 유례없는 가격을 기록하였다. 호황으로 보이는 빈곤이다. 이렇게 축산이 어려운 지경인데도 높은 계란, 육계가격으로 인해 소비자가격을 부추기는 농축산물로 오인 받는 일이 한두번 인가? 이에 전격적으로 정부는 82억원에

달하는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하였고 일각에서는 3백50여만 개의 실용육계의 부화란이 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가 필요한 조치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없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우리 속담이 실감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예년의 사례를 볼 것도 없이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회복되는 종제로인한 과잉생산은 가격폭락과 연결되어 올상이될 양축가들이 연상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폭염기간중 가축폐사 증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낙후된 사육시설'이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비단 그뿐 아니라 UR협상이후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축농가의 시설자동화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축산기자재 분야에의 관심은 어떠한가? 예산과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화 부분이 차일피일 미뤄져가고 있음은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자동화는 양축농가나 기자재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계란 생산

**축산 시설자동화에 대한 인식은
사양가단체·관·산·학이 모두 어우러져 함께 연구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새로운 분야는 전문인력을 배양,
투입하고 필요하다면 부서도 신설해야 한다.**

이나 벤딩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한국이 어찌 기자재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가라는 얼굴 뜨겁게 만드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다. 각종 사양가 단체가 축산기자재협회에 가입하여 해당 축종 기자재에 대한 연구를 같이하는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일일것이다.

이제는 우리끼리의 경쟁이 분명코 아니다.

축산 시설자동화에 대한 인식은 사양가단체·관·산·학이 모두 어우러져 함께 연구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새로운 분야는 전문인력을 배양, 투입하고 필요하다면 부서도 신설해야 한다. 예를들면 현재 현안으로 되어있는 축산기자재 영세율적용에 대한 품목 결정에 있어 여러 방면으로 유관단체에 협조를 구한 바 있으나 협조가 요원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것은 전문인력부족 이전에 내것 외에는 무관심했던 결과일 것이다.

이제는 축산 유관분야끼리의 상호 정보교환 및 축산발전이라는 대 명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축산인 모두가 가져야 할 때이며 창간 25주년을 맞는 월간양계지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당부해 본다.

비가 kg당 일본이 903원, 미국이 829원, 네덜란드가 671 원인데 비해 한국은 1,062원이며 닭고기는 생체kg당 일본이 1,171원, 미국이 548원, 네덜란드가 860원하는데 한국은 890원이라는 것은 자동화의 필요성을 역력히 실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시설의 자동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전에 협회에서 일본 축산기자재 업계를 방문했을 때 고가(高價)의 축산기자재들이 한국 축산농가에서는 보온덮개나 비닐하우스속에 장치되는 것이 이해 안된다고 하고 용융도금